화려한 "뮤지컬" 사이의 옹골찬 "일인극"

◇한국 현대 1 인극의 행로—최근 여성연극을 중심으로

「셜리 발렌타인」의 손숙(왼쪽)과 「11월의 왈츠」의 박정자

3월 27일인 오늘은 '세계연극의 날'이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모노드라마의 현대사의 내용을 재조명하고 그 의의를 밝혀 보고자 한다. (편집자)

1977년 일어난 연극의 기현상은 모노드라마붐이다.

그 붐의 시작은 이제 고인이 된 추송웅의 '빠알간 피이터의 고백'이다. 70년 소극장 카페떼아뜨르에서 공연된 김동훈의 '롤러스케이트를 탄 오뚝이'이후 7년만에 나타난 사건이었다.

"전생에 죄를 지은 듯 배우란 운명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라며 현대연극의 대선배로서, 일인극의 선구자로서 고충을 토로했었던 그는 이후 일인극 '우리들의 광대'에 영상기법을 도입하는 상업성이 짙은 시도로 대중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했다.

정상에 있는 이에게는 경쟁자가 붙기 마련이다. 김상경의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는 아카데믹하면서도 정통극을 따르고자 해 추송웅과는 여러모로 대립되었다.

77년이후 80년대까지는 일인극의 춘추전국시대이다.

기주봉의 '마지막 테이프', 김동수의 '변신'이, 판토마임으론 유진규의 '환상,' '그 위', 김성구의 '우리들의 초상1, 2' 등이 공연되었다.

연인과의 이별을 견디지 못하던 주인공은 침대에 누워 목에 전화줄을 감아 자살한다. 윤석화의 '목소리'의 마지막 장면.

관객과 호흡하는 친구같은 일인극 배우
스타시스템이 배출한 우리시대 청량음료

80년 중반 송승환이 리바이벌한 '빠알간 피터의 고백', 87년 주호성의 '술' 88년 권병길의 '거꾸로 사는 세상' 등도 눈에 띄는 작품들이다.

88년 올림픽이 있던 해 제1회 아시아 일인극 페스티벌에서 마임이스트 유진규가 대상을 차지해 우리 일인극이 대외적으로도 가치를 높혔다.

그후 '한 시대를 풍미한다'는 말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라는 인식이 연극계에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근래의 연극들은 이렇다할 조류가 없다.

그러나 최근의 5~6년간의 연극을 돌아볼 때 이 시대를 반증하는 것은 뮤지컬의 호황, 일명 '벗기기 연극' 등의 몇가지 논란이 있겠으나 역시 비중있게 분류될 것은 일인극이 아닐까 한다. 주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여성연극인의 연기는 가뭄에 단비같은 해갈을 느끼게도 해 주었다.

현대예술의 거장으로 불리우는 장 꼭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89년 10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연한 윤석화의 '목소리'는 전형적인 비극의 줄거리를 갖고 있다. 윤석화는 시종 전화기에 대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얘기한다. 애증과 집착끝에 전화줄로 목을 매고 죽는 장면은 잊지 못할 섬뜩함으로 남는다. 약하게만 보이는 주인공의 숨은 의지를 느낄 수 있다.

90년 7월4일 세계여성 극작가회의 출품작인 '어떤 작은 일들은'은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일인극으로 극작가 최명희의 날카로운 상황 지적과 배유정의 열연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92년 3월20일을 초연으로 당시 5만의 관객을 끌어 들인 윤석화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는 지난 16일 부터 산울림 소극장 개관10주년기념작으로 다시 올려지고 있다. 딸 혹은 어머니라고 불리는 세상의 반쪽 여성관객들 물론 남성관객도 함께 울고 웃게 한 모처럼의 후련한 나들이 같은 연극이었다. 또한 원작보다 훌륭한 윤석화의 작품 해석으로도 호평받았다. 최근 윤석화는 '딸에게…'라면 다시 보듬어 보고 싶었기에 재연한다고 고백했었다.

92년 4월 '로젤'을 통해 19회 영희연극상을 수상한 김지숙은 활발한 여성운동가로서 더욱 유명하다. 그녀는 지난 1993년 10월27일 우리신문 제1032호(1993년 11월1일자)에서 본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부남씨 성폭행사건, 윤금이씨 사건 등의 여성문제는 여성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연극인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 준 로젤의 주인공 "로젤과 같은 여성상은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여성"이라며 역설적인 설명을 했었다.

1994년 상반기, 좀 더 깊이 있게 여성문제를 다룬 것은 손숙의 '셜리 발렌타인'이다. 이는 '리타 길들이기' 등을 통해 여성문제를 전격적으로 다룬 페미니즘 작가 '윌리 러셀'의 작품이다. 마치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서 처럼 훌쩍 떠나고, 노르웨이 소설 '인형의 집'의 주인공, 로라의 자아를 찾는 여행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94년 10월20일 부터 이듬해 2월28일까지 3개월 반이란 기간동안의 공연으로 2만여명의 관객이 거쳐간 '11월의 왈츠'도 소극장 공연의 신화이다. 스타시스템의 전형이라 할만큼 수많은 요소들이 박정자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녀의 흡인력과 매력으로 완성된 무대였다.

이 연극을 연출한 브로드웨이 출신 장두이는 "명작은 없어도 명배우는 있을 수 있는 시대"라며 자신의 시대관을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스타시스템에 길들여진 한국의 연극계를 있는 그대로 수긍하는 의미로 비춰진다.

명배우 시리즈로 손숙과 박정자의 위의 작품들을 기획하고 펼쳐 보인바 있는, 실험극장 홍보부 박효정씨는 "압구정동에 위치한 실험극장에서 연극을 보는 주요층은 주부들이며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이들이 나름대로 고급문화 향유를 목말라 했을 즈음"이란 시기성이 흥행의 열쇠였다고 밝힌다.

지난 1일부터는 파트리크 쥐스킨스의 희곡으로 유명한 '콘트라베이스'를 명계남이 공연중이다. 오케스트라를 세계에 비유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모순을 표현한다.

최근 연극은 마당극, 사회극 등으로 이념적 의미가 짙던 80년대의 분위기에 편승했던 지난 시대를 지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한다.

지난날 보다야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연극이라는 문화적 장르가 우리삶에 한층 다가온 듯한 느낌이다. 소비문화가 판치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청량제이기도 하다.

연극의 특성은 그 역사가 오랜만큼이나 비소비적이며 원시적이다. 사람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을 쉬며 느낌을 공유하는 공연장 문화는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비상구를 찾듯 극장으로 몰려든다. 장기공연의 터전인 소극장문화가 완전히 정착했으며 소밀화, 친밀화 되어가는 관객과 배우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연극의 이점이 극대화된 장르가 일인극이다. 이때의 배우는 동료배우가 아닌 관객 개개인과 교감하며 대화한다.

그 배우는 혼자 연기하지만 다수가 나오는 일반 연극보다 치열한 연기를 하며 매력적이며 카리스마적이다. 더우기 '스타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의 일인극은 소비성에 있어서도 수지맞는 장사가 될 것이다.

후기자본주의 시대인 오늘날 연극계에는 여러 기술이 투입되어 종합예술로서 화려한 면모를 보여주는 뮤지컬이 있는가하면 소극장 중심, 배우와 관객이 친구가 되는 일인극이 공존한다.

여운이 남고 정감이 가는 것은 복잡한 도심 속의 한 그루 가델 나무가 되어 주는 '일인극'일 것이다.

〈이유경 기자〉

공연·운동·휴식의 메카

음악·비디오 감상실 등 확충요망
우리 삶속의 대학문화 창조해야

새내기에게 문화공간이란 말은 어쩌면 어색하고 익숙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입시라는 중압감 속에서 지내온 지난 중등교육의 현장에서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대학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의 시작에 선 이상 문화의 향유란 그저 막연한 동경과 이상은 아니다. 곧 생활 자체가 그 모든 문화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학교의 실질적인 문화공간은 대체로 큰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밖에서 드러나는 웅장한 모습처럼 크라운관은 이름조차 거창하다. 이미 지난 신입생 전체 MT를 통해서 선을 보였던 바 있었고, 그 외에도 각종 공연 등이 있다.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보컬그룹 NAKED의 '봄 정기연주회'는 기대해도 좋을만하며, 경희 오케스트라와 각종 학내의 대형 공연문화의 마당이 될 것이다. 수원캠퍼스 외국어대의 한누리 소극장도 각종 공연의 장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 도서관 시청각실은 학내에서 가장 널리 그 쓰임새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동아리들의 실력발휘를 위한 공연장으로 뿐만 아니라 각종 학술 심포지움과 토론회, 세미나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수원 도서관내에 곧 개방할 AV(Audio & Video) ROOM은 음악·영화감상, 외국어 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

건물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이 비교적 작은 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형 문화행사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서울 캠퍼스의 노천극장이다. 평소에도 테니스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체육활동의 마당이 되고 있으나 이미 몇차례에 걸친 '꽃다지' 등의 공연으로 학내외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외에도 총학생회의 발대식과 서총련, 한총련 등의 대학연합 문화행사 등이 한해에 몇차례씩 치루어지는 곳이다. 이밖에도 새로 지어진 깨끗한 건물의 복지회관 공연장이 활발한 활동의 무대가 되고 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27일에서 29일까지 영화상영을 준비하고 있다. 4층의 여학생 휴게실은 음악과 휴식의 편안함이 있다.

수원 학생회관의 외환은행 앞 계단을 오르면 새로 개장한 여학생 휴게실이 있다. '꾸밈방', '잠자는 방' 등이 마련된 쾌적공간으로 총여학생회 주관의 행사도 열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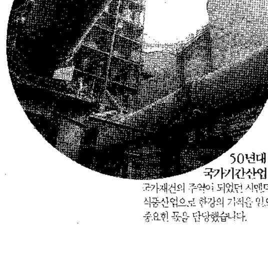
여기까지 각종 시설물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학내의 문화공간은 학생자신이 이용하기에 따라 충분할 수도 부족할 수도 있다.

대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학생들의 땀방울에서 A·V센타에서 내려오며 외국어를 중얼대는 친구들에게서, 체육과학대 헬스장의 땀방울에서, 체육대학의 수영장에서, 잘 다듬어진 학교의 잔디밭과 공원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무언가를 토론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들의 충분한 문화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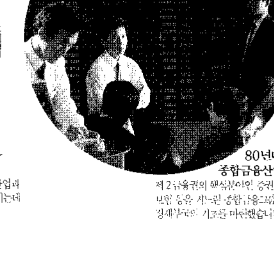
음악감상실이나 비디오감상실 등 확충되어야 할 공간등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학교란 울타리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자신의 삶을 가꾸려는 창조적 지혜도 필요하다.

〈박은미 기자〉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50년대~
국가기간산업
국가재건의 주역이 되었던 시멘트산업과 식품산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80년대~
종합금융산업
제2금융권의 핵심분야인 증권, 단자, 보험 등을 사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서 경제부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
정보·유통·서비스산업
미래산업인 정보통신, 유통, 서비스업 등으로 2천년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동양그룹은 발빠르게 미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길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질까요?
그 해답은 미래를 미리 살아가는 미래마인드입니다.
50년대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꼭 필요했던 시멘트와
식품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들었고, 80년대를 이끌었던
종합금융산업의 기치를 누구보다 앞서 내걸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정보, 유통, 서비스산업으로 압축됩니다.
동양그룹은 이미 이러한 미래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젊은 동양그룹,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동양그룹

동양시멘트 · 동양제과 · 동양증권 · 동양투자금융 ·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 · 동양매직 · 동양글로벌 · 오리온프리토레이 · 동양SHL · 오리온카툰네트워크 · 동양해운 · 동양마트 · 동양창업투자 · 동양투자자문 · 동양선물 · 동양산업기계 · 동양파이낸스 · 서남재단